

양림동 근대유적, 호남 대표 문화·관광지된다

광주시, 문화전당과 연계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모색

포크뮤직 특화지구 등 외지인 발길 끄는 사업 추진

광주 사직공원과 양림동 선교사 유적지 일대를 호남 근·현대 문화의 1번지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이 일대를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문화자원으로 일구는 한편 도심 발전을 위한 인프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최근 문화 전문가, 직원 등과 함께 사직공원과 양림동 선교사유적지 등을 둘러보고 가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등 활성화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현장답사는 공약사업의 하나인 도심상징지구 조성과 관련한 것으로, 사직공원과 양림동 호남신학대학교 일대의 다양한 근·현대 유적의 자취를 돌아보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위해 현장 모니터링과 직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답사에서는 사직공원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문화전당 방문객이 옛 시청 사거리를 거쳐 사직공원으로 올 수 있도록 하고, 공원 입구를 개선해 청소년이 찾을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반영해 추진하는 양림동 근대유적조성사업 대해서도 여러 유적 자원들의 조화로운 활용을 위해 개화기 전후의 마을 역사를 근거로 하는 스토리텔링과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로 효과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오갔다.

사직공원은 1970~1980년대 동물원과 수영장이 있었던 곳으로, 당시 광주시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대표적인 광주의 명소였다. 양림동은 다양한 근대 문화유적 자원이 존재하고, 음악가 정윤성 선생과 김현승 시인을 비롯한 문학인

들, 한평생 사랑과 봉사정신을 바친 외국인 선교사 역사 등 광주의 근·현대 정신과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직공원과 양림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포크 뮤직 특화지구 조성, 전망타워 설치,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 양림동 근대유적 조성사업 등 여러 의미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직공원과 양림동 근대유적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상품으로 광주를 방문하는 외지인과 시민이 모두 찾는 명소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상이 남긴 땅 모를 땀

광주시에 물어보세요

광주시는 16일 “올해 들어 8월말까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81명에게 207필지 16만㎡를 찾아줬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명의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지적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제도다. 사망자의 상속인 또는 토지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나 가까운 구청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지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마치면 지적전산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해 명의 등이 일치하면 해당 토지 자료를 무료로 발급해 준다.

송희오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자손들이 조상이 남긴 땅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자손들이 조상 땅을 찾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서비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소방본부 방사능 대응 훈련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최근 15일 광산소방서에서 광주권역방사선사고지원단과 합동으로 방사능 사고 초기대응력 향상을 훈련을 실시했다.

호남고속도로·국도 1호선 20~27일 일시적 진입금지

북광산IC 교량 구조물 이동

10분씩 32차례 교통 일시제한

오는 20일부터 27일 사이 호남고속도로와 국도 1호선에서 총 32차례 교통이 일시적으로 전면 통제된다.

통제 구간은 호남고속도로 광산IC~광주요금소 방향 2km, 국도 1호선 광산구 비아동~장성 경계지점이며, 10분씩 통제된다. <표>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북광산IC 교량 가설에 따라 진곡산단 진입도로 북광산IC 교량 구조물 이동 시간에 맞춰 통행 차량 안전을 위해 교통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건설본부는 통제가 예정된 날에는 장성IC~광산IC~동림IC로 우회하거나 장성분기점, 대덕분기점에서 고장담양고속도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 관할 경찰서 등과 함께 철저한 사전

차량통제 일정표

일시	작업시간	차단위치	차단횟수
20(토)	21시~21일 7시	국도1호선 광산구 비아동~장성 남면 경계지점	10회
21(일)	21시~23일 7시	호남고속도로 광산 IC~광주TG방면 약 2km지점	10회
24(수)	21시~25일 3시	호남고속도로 광산 IC~광주TG방면 약 2km지점	6회
27(토)	9시~17시	국도1호선 광산구 비아동~장성 남면 경계지점	6회

※ 차단시간:각 회당 10분 내외

준비를 통해 차량 통제시간과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통제요원의 지시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특별기고

광주와 10년간의 교류를 돌아보며



성 김
주한 미국대사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오늘 광주 아메리칸 코너가 광주 시민들에게 문을 열었다. 주한 미국대사관과 광주광역시립도서관(무등도서관)과의 동반자 관계로 설립된 광주 아메리칸 코너는 미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민주주의, 인권, 여성 인권 신장 및 혁신과 같은 양국 간의 공통된 이상을 증진시킴으로써 미국과 광주 간의 탄탄한 인적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해왔다. 아메리칸 코너가 개관한 이후 작년에만 1만1500명의 방문객을 포함 총 5만여 명의 광주시민이 이곳의 자원을 활용해 왔다.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나는 한국팀 미국팀 둘 다 응원할 것이다.

광주 아메리칸 코너는 모든 광주 시민에게 다양한 도움을 제공한다. 어린이들과 부모는 우수 아동 영어원서를 읽기 위해 함께 광주 아메리칸 코너를 찾는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장학금을 얻을 기회를 알게 되고, 미국 대학에 지원 하는 방법을 배운다.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들은 미국식 이력서를 쓰는 법과 미국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전문가와 교수들은 시사 논하고 미국에서의 교환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된다. 주부들은 재취업 및 인적자원에 대한 최근 동향을 논의하고, 퇴직자들은 영어를 연습하거나 미국 내 새로운 인기 있는 관광지 에 대한 정보도 접하게 된다.

아메리칸 코너는 서울 외 지역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공부하는 한국인들에게 다가가려는 우리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다. 아메리칸 코너는 한국 내 세 곳으로 광주, 부산, 대구에 각각 소재하고 있다. 서로간의 협력을 통해 무등도서관은 공간과 직원을 제공하고 미대사관은 영어 서적, DVD, 기자재, 컴퓨터, 화상회의 장비 및 기타 자료를 제공해왔다. 실제로 광주 아메리칸 코너는 ‘앵무새 죽이기’, ‘위대한 개츠비’,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및 ‘허클베리 핀의 모험’과 같은 내가 좋아하는 책들도 소장하고 있다. 미대사관과 무등도서관은 광주 시민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광주 아메리칸 코너는 독서 캠프, 사진전, 영화 축제, 미 전문가와 화상회의, 영어 수업, 미 대사 방문 등을 가졌다.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통해 미외교관, 학자 및 영어 교사들이 아메리칸 코너를 계속 방문할 뿐 아니라 미국과 광주 시민 간의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한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 하도록 할 것이다. 향후 10년간 훨씬 더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니 광주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바란다.

나는 광주의 젊은이들이 광주 아메리칸 코너에 더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ACGwangju)를 방문하고, 프로그램에 참여 및 현안을 연구하여 세계적인 시각을 얻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지난 10년 동안 광주 아메리칸 코너의 발전에 도움을 준 광주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광주시 ‘음식떨어먹기’ 참여업소 모집

울 120곳 지정 위생용품 지원

광주시는 오는 25일까지 한식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 떨어먹기 실천운동’ 참여 희망업소를 모집한다.

시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습관을 조성하기 위해 ‘떨어먹기 실천 음식점’을 모집중이며 지난해에만 78곳이 참여했다.

올해는 추가로 120여 개 음식점을 지정하기로 하고 5개 자치구별로 15~35 곳씩 모집해 집게, 개별접시, 국자 등 떨어먹기 위생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음식점은 공동으로 제공되는 주메뉴와 반찬을 떨어 먹을 수 있도록 개별 접시를 인원수대로 제공하고, 반찬류 전용 집게를 비치해야 한다. 탕과 찌개 주문 시 국자, 개별접시 등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채희종기자 chae@

최상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No.1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기업! 유대복상사

여러분의 생활속에 함께합니다!

신록의 계절!
싱그러운 시작!!

- ▶ 금속구조물
- ▶ 창호공사
- ▶ 도로표지판
- ▶ 휨스

유대복상사 DEABOK

전남 순천시 저전길 86(인제동)
Tel. (061)744-4225 Fax. (061)741-6269
E-mail. chunji6268@hanmail.net